

'4전5기' 남녕고 홍지혁 모래판 평정

제52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소장급 우승을 시즌 4개 대회 정상문턱에서 번번이 '무릎'

홍지혁(사진·남녕고 3)이 마침내 고등부 모래판을 평정했다.

홍지혁은 14일 충남 보령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고등부 소장급 결승전에서 이호(공주생명과학고)를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홍지혁은 이날 결승전 첫판에서 상대가 들배지기를 시도하자 이를 역이용해 잡치기 기술로 따냈다. 이어 둘째판에서도 가볍게 상대를 물리치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림초 때부터 우승경력을 갖고 있는 홍지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올 시즌 다섯 번째 도전만에 고등부 정상에 우뚝서게 됐다.

특히 홍지혁은 이날 하루 동안 8강전까지 단판 승부로, 준결승전부터 3판 2선승제로 펼쳐지는 대회 특성상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상대들을 연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지혁은 앞서 준결승전에서 유영택(춘천기계공고)을 맞아 2-0으로 물리쳤다. 유영택과의 두 번째 판은 비디오판독까지 갔으나 홍지혁의 완벽한 기술에 이은 승리로 판가를 났다. 홍지혁은 대회 첫 상대인 김민우(인천 부평고)를 시작으로, 이상윤(서울 송곡고)과 박현우(공주생명과학고)를 차례로 꺾었다.

홍지혁은 올 시즌 열린 네 차례의 대회에서 결승과 준결승전 문턱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4월에 열린 제36회 전국시도대학 장사씨름대회(경남 창녕)와 제76회 전국구름선수권대회(강원 인제)에서 이은수(경남정보고)에게 패하며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어 지난 5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9회 확산김성률장사씨름 전국장사씨름대회 결승전에서는 숙적 이은수와 만났으나 또다시 패하며 정상정복의 기회를 놓쳤다. 제23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도 이은수의



우승을 바라만보아 했다.

박현우 코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

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출전해 우승을 기대했던 이호상은 8강전에서 도전(충북 운호고)에게 아쉽게 패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제주고 야구 1승 추가 힘들지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 1회전 탈락 투·타 조화 경험 축적 속 대통령배 등 재도전

제주고가 높은 마운드 등을 갖고 있는 배재고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경험이 쌓이면서 재도약을 위한 전력을 다질 수 있었다.

제주고는 1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7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1회전에서 배재고에 0-9 7회 폴드게임으로 패했다.

장맛비로 인해 하루 순연돼 이날 경기는 배재고의 1회초 공격에서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다. 제주고는 1사 3루의 상황에서 3점을 내주면서 기선을 제압 당했다. 이어 4회초에도 안타 4개와 볼넷 3개를 허용하며 4점을 더 내줬다. 0-7. 제주고는 추격이 버거운 상태로 내몰렸다.

힘든 상황에서도 제주고는 5회말 몸에 맞는 볼 2개와 안타로 1사 만루의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후속타는 없었다. 6회말 실책과 안타로 얻은 무사 1, 2루에서 병살타가, 후속 타자는 2사 3루에서 삼진을 당하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제주고는 6회초에 이

어 7회초에도 1점씩을 더 내주며 경기를 끝내야 했다.

제주고는 선발 고지훈이 4이닝 7실점으로 배재고의 예봉을 꺾지 못하며 끌려가야 했다. 타격의 뒷받침 역시 없었다. 상대 선발투수에 4이닝 동안 1개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하는 등 단 2안타의 빈공에 허덕였다. 제주고는 이날 폴드게임 패배에도 불구하고 고지훈에 이어 나온 이준서와 김태양의 마운드 '필승조'가 서울권 강팀의 화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타선도 상대 투수들의 구질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돼 패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제주고의 다음 도전은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다. 오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제주고는 청룡기 선수권 보다 나은 경기력을 선보여야 한다. 선수단 규모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겠지만 제주고 야구의 근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프로농구 2022-2023 시즌 10월 15일 개막

SK-KGC 공식 개막전 확정

2022-2023 시즌 프로농구 정규경기가 오는 10월 15일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자웅을 겨룬 서울 SK와 안양 KGC의 공식 개막전으로 시작된다.

KBL은 오는 10월 15일 개막해 2023년 3월 29일 막을 내리는 2022-2023시즌 프로농구 정규경기 일정을 14일 발표했다.

서울 SK와 안양 KGC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해 SK가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다.

또 같은 날 수원 kt-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도 열리며, 고양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자산운용이 원주 DB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시즌 이후 개최되지 못한 '농구영신' 매

치는 3시즌 만에 원주 DB와 전주 KCC (원주종합체육관)의 경기로 열리며, 울스타전은 내년 1월 15일 개최된다.

올해 출범하는 동아시아 슈퍼리그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서울SK와 안양 KGC가 KBL 대표로 출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홈 & 어웨이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른다. 동아시아 슈퍼리그는 내년 3월 3일 준결승전, 3월 5일 결승전이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 SK와 안양 KGC가 출전하는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일과 준결승전, 결승전에는 KBL 정규경기를 배정하지 않고 국제 대회로 일정을 진행한다.

한편 2022-2023시즌 프로농구 정규경기 개시 시간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제주 서틀록 고등부 혼복 전국 최강

2022 대한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 대회 이민욱-오연주 우승... 김현빈-하지운 이어



이민욱(제주사범대부설고 2)-오연주(제주여고 2)가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중고)에서 강호들을 물리치면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사진 이민욱-오연주는 지난 12일 충남 서산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혼복복식에서 김병재(김천생명과학고)-박주은(김천여고)을 2-1(21-13, 18-21, 21-1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욱-오연주가 우승하면서 제주는 지난 5월 경북 청송에서 열린 2022 전국 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1위에 오른 김현빈(제주사범대부설고 3)-

하지운(제주여고 3)에 이어 다시 정상에 등극하는 영광을 누렸다. '혼합복식은 제주가 최강'이라는 정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민욱-오연주는 김현빈-하지운이 우승한 전국 종별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민욱-오연주는 이번 대회 8강전에서 2022 높을고장배 준우승팀인 박승민(김천생명과학고)-구서연(김천여고)을 맞아 접전 끝에 2-1(18-21, 21-16, 21-19) 역전승을 거두며 4강전에 진출했다. 이민욱-오연주는 준결승전에서 2022 높을고장배 우승팀인 현시원(전주생명

과학고)-고희주(전주성심여고)와 겨뤘다. 하지만 상승세를 탄 이민욱-오연주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세트 스코어 2-0(21-16, 21-19) 완승으로 끝났다.

결승전 상대는 현재 단식 랭킹 1위인 김병재가 박주은과 짝을 이룬 강팀이다.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1세트는 이민욱-오연주가 따내고, 2세트는 김병재-박주은이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 1-1을 기록했다. 물리칠 수 없는 마지막 3세트에서 앞치락 뒤치락하면서 승부를 이어 갔지만 이민욱-오연주의 뗃심이 강했다. 결국 2-1로 이민욱-오연주의 승리로 끝났다.

오연주는 지난 5월 열린 종별대회에서 팀 동료 부서연과 짝을 이룬 여고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낸 복식의 강자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증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esolar.co.kr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